



돈콜레라 박멸과 돼지고기 수출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우리 나라 양돈산업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규모면에서 750만두로 적지 않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9만여톤의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여 농·축산업중 효자산업이란 칭찬을 듣기에 이르렀다.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종돈의 상당부분도 수입에 의존하며, 분뇨처리의 어려움과 질병 문제가 해결 안된 가운데 이 만큼의 성과를 얻게 된 것은, 정부의 지원과 양돈농가, 관련산업의 노력에 돼지고기 수출국인 대만의 구제역 발생 등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중에서 우리가 수출산업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중에 돈콜레라 박멸을 들 수 있는데 양돈농가의 대 각성과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돈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겁주기 구호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현재 돈콜레라 발병이 없고, 돛도리, 가나가와현 등 일부 현은 예방약 주사를 중지하고 있으며, 이후 2000년 10월 이후는 일본 전국이 예방주사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추어 금년에 예방접종 100%를 실시하고, 2000년에 접종을 중단하고, 2001년에는 돈콜레라 청정화를 선언하려고 준비해 왔으나, 양돈농가가 이에 따라주지 못하고 용인 등에서 발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지난 3월 8일 농림성 가축위생과장이 한국 농림부 축산위생과장 앞으로 문서를 보내왔는데(15일 도착)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10km 이상 격리되어 40일 이상 발생이 없었던 지역의 농장 또는 가공장에 출하된 것으로 하고,

○ 가공장은 출하전 40일 이상 오염지역으로부터 돼지를 반입하지 않아야 하며,

○ 예방주사를 사용하지 않은 돼지를 사용할 것

이제 수출길이 막히면 양돈장 개인별로 잘해도 소용없게 되며 공멸의 길을 가게 되므로, 회원·비회원을 막론하고 서로 권유하여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정부는 백신 접종을 게을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양돈 선진국이 돼지콜레라 백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양돈산업이 붕괴되면 현재 우리나라 축산을 이끌고 있는 양돈업과 2001년부터 수입 개방되는 쇠고기 등 우리나라 축산업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공품에 대하여는 가열처리 또는 돼지콜레라 병균의 살균처리가 되어 있을 것 등이다.

○실시 시기는 4월 1일로 되어 있었다.

이중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문제이고 현 반경 2km에서 10km로 늘리는 문제이다.

우리 정부 축산위생과에서는 WTO SPS 규정에 상대국과 협의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과 현재 일본도 백신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일본도 3월 19일 수입업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시행시기는 한국과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분명히 하였다.

3월 23일 양국 실무자들의 협의에 따라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대로 100% 백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수출을 통해 돼지고기의 발골, 절단, 정형 등 기술과 냉장육으로의 품질 고급화, 규격돈 생산 등 양돈산업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 왔었다. 가격 면에서도 후지의 수출에 따라 돼지 값을 회복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정보산업 사회에서 비밀이나 일시적, 비정상적인 방법 등도 오래갈 수 없으

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고 지나친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면 우리의 문제일 뿐이다.

돼지고기가 97년 7월 1일부터 개방되었으나, 그 해는 물가조절용 돼지고기가 버티고 있어 수입이 안되었고, 지난해는 IMF 사태로 수입이 미미했고, 금년부터 수입물량이 증가되어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시험받는 해가 될 것이다.

이제 수출길이 막히면 양돈장 개인별로 잘해도 소용없게 되며 공멸의 길을 가게 되므로, 회원·비회원을 막론하고 서로 권유하여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정부는 백신 접종을 게을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양돈 선진국이 돼지콜레라 백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양돈산업이 붕괴되면 현재 우리나라 축산을 이끌고 있는 양돈업과 2001년부터 수입 개방되는 쇠고기 등 우리나라 축산업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

금년 1년은 21C를 준비하며 지난 1000년을 정리하는 한 해로 세워 놓은 계획들을 차분히 조용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 나라 양돈업의 장래가 금년 한 해의 하기에 달려 있다. **양돈**